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호 【루계 제24794호】 주체104(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여정동지, 홍영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지난해 당이 준 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새해전투에 진입한 공장로동계급을 고무격려해주려고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7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특별히 관심하신 강동정밀기계공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이 수많이 어려있다고, 혁명사적교양실을 혁명사적관으로 개건하여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후세에 전해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혁명사적관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중성과 직관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혁명사적관의 매 호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사적관을 교양거점답게 정말 잘 꾸리였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동정밀기계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굴지의 기계제작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공장이 창립된 때로부터 7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자랑스러운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장성의 열쇠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에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장로동계급이 당정책결사관철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구내에 새로 건립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비를 잘 건립하였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며 투쟁하려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가 낳은 결실이라고, 언제나 높은 생산성과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공장로동계급이 다르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새 제품개발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만든 기계제품을 보아주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성능높은 기계제품을 훌륭히 개발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새로 만든 기계제품이 멋있고 잘 생겼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으며 각이한 용도에 쓸수 있는 이런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증산의 동음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지난해에 그전보다 제품생산량을 훨씬 늘이였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기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은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소음공해를 없애는것을 비롯하여 공장의 작업환경도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 단위들을 보면 례외없이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철저히 확립된 단위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올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정밀기계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계가공설비들은 물론 첨단기술이 도입된 검사 및 검측설비들을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편의봉사시설들을 손색없이 꾸리며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과학기술지식보급실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떠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건설한 로동자합숙의 침실, 식당, 열람실을 돌아보시면서 합숙생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합숙관리운영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후방사업문제는 우리 당이 시종일관하게 강조하는 중요한 정책적문제이라고, 후방공급사업과 문화정서생활수준이 높으면 공장에 대한 종업원들의 애착심과 생산열의도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결사관철의 본보기공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강동정밀기계공장의 전체 로동계급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뜨거운 사랑과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물 생산과 기지운영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먹이풀증산을 담보한 승산있는 공격전

인민보안부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인민보안부려단 일군들이 드바쁜 봄철 두달동안에 연 수만명의 로력으로 해야 할 일들을 혁신적으로 해제낌으로써 먹이풀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나가고있다.

혁신적으로 세운 작전

일군들이 먹이풀증산목표를 세울 때 모를 박은것은 품이 드는 밑비료주기를 정초에 해제끼면 봄철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로력을 씨붙임준비에 돌려 먹이풀판조성을 짧은 기간에 결속할수 있다는 문제였다. 그러자면 물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실어내야 하였다. 그것은 물거름에 들어있는 비료성분들이 쉽게 분해되여 먹이풀에 리용될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때문이였다. 겨울철조건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럴만도 하였다. 우선 물거름을 그대로 내면 쉽게 증발될수 있었다. 때문에 비료성분의 손실을 막고 운반과 주기에 편리한 거름을 만들어 써야 하였다. 그러자면 석탄재가 없는 지대여서 언땅을 까고 보드라운 흙을 확보하는데 많은 품이 들었던것이다. 또한 물거름은 푹 썩인것을 써야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병해충을 발생시킬수 있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거름도 쓰는 방법에 따라 먹이풀생산을 크게 좌우하였던것이다. 그렇다고 봄철로 실어내기를 미룰수도 없었고 물거름이 썩을 때를 기다릴수도 없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총공격전의 전렬, 최전방에서 기관차적역할을 해야 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실속있는 대책을 세워주자.

이렇게 결심한 참모장 봉원동무는 이 문제를 등판에서 열린 협의회때 제기하였다. 시공과장 정명일동무가 물거름을 끓여 눈과 섞어 덩이로 만든 다음 먹이풀판에 실어내자는 안을 내놓았다. 거름효과를 최대로 낼수 있고 병해충발생을 막으며 운반에도 편리한 실속있는 방도였다. 려단이 조성한 먹이풀판은 해발고가 높은 지대여서 눈은 어디에나 쌓여있었다. 눈은 물을 고르롭게 흡수하기때문에 물거름과 섞어 빚으면 눈덩이가 통채로 거름덩이로 된다. 이것을 포전에 내면 추울 때 눈속에 묻혀 보존되였던 비료성분이 봄철에는 녹으면서 땅속에 고루 스며들기때문에 먹이풀의 초기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수 있었던것이였다.

그러나 려단참모장은 쉽게 결심을 내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나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해제껴야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는 먼저 려단의 모든 단위들에서 물거름을 끓일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눈덩이를 빚을수 있는 일정한 덩어리모양의 크기를 가진 용기를 모두 같은 규격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포전별로 정보당 물거름주기량을 확정하고 눈덩이를 정보당 6 000개, 평당 2개씩 내기 위한 전투목표를 제기하였다.

정치부장 천운송동무가 남먼저 아궁에 불을 지피고 물거름을 끓이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였다. 결국 지난 시기에는 봄철에 매일 1 000여명의 로력으로 보름동안에 하던 밑비료주기를 훨씬 적은 로력만 가지고도 년초에 와닥닥 해제낄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수만공수를 대신할 로라다짐기 생산

려단일군들이 먹이풀의 초기생육을 왕성하게 하는데서 중시한것은 뿌리의 활성을 높이는 문제였다.

봄철이 되면 먹이풀판의 토양이 한껏 부풀어오르면서 땅속층과 뿌리층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한두해 자라 여러번 가을을 한 먹이풀도 뿌리가 마르거나 더 깊이 내리지 못하여 초기생육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조건을 앞질러 타산한 려단일군들은 지난해에도 봄철에 들어서자 로력을 총집중하여 먹이풀의 주변을 밟아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든 먹이풀포기주변을 빠짐없이 꼭꼭 밟아주자니 많은 품이 들었다. 초보적으로 계산해본데 의하면 려단적으로 한정보에 하루 수백공수를 들여야 계획된 면적을 40여일동안에 끝낼수 있었다. 그런데 시작한지 열흘이상 지나 밟아주기를 한 포전의 수확고는 앞선 포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이것은 모든 포전에서 하나와 같이 높은 수확을 낼수 있는 방도의 하나가 적절한 시기에 밟아주기를 와닥닥 끝내는데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다른데서 로력을 보충할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어쩔수 없는 일로 미루어놓으면 당정책관철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완강한 실천으로 결사관철해나가는 선구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없었다.

려단장 송병걸동무는 여러 단위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였다. 그 과정에 로라다짐기를 만들어 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그는 즉시 일군들,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쳤다. 좋은 방도들이 나왔다.

려단에서는 한개 단위를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로라다짐기를 만들어 리용하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결과는 좋았다. 수십kg정도되는 원기둥모양의 철덩이로 만든 로라다짐기로는 한사람이 하루 한 정보의 다짐작업을 할수 있었다.

려단일군들은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나래치게 할 신심드높이 즉시 100여대의 로라다짐기를 만들 전투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생산현장으로 떠났다. 그리하여 수만명의 로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밟아주기를 단열흘동안에 끝낼수 있는 돌파전이 시작되였다.

치밀하게 따져보고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승산있는 공격전, 바로 이것이 려단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올해의 투쟁기풍이고 일본새이며 먹이풀증산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토지리용에서 찾은 큰 예비

중앙현장지휘부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침땅을 잘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축산물생산과 기지운영준비를 착실하게 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놓고 중앙현장지휘부 일군들이 관심한것은 토지리용률을 높이는 문제였다.

당의 구상대로 우리 식의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이 완공되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풀먹는집짐승들의 먹이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포전들에 빈땅이 없게 하여 각종 먹이풀의 생산량을 늘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던것이다.

분과장 김영남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두가지 방도를 내놓고 실천해나갔다. 하나는 두둑식재배를 한 모든 포전의 골들에도 먹이풀을 심는것이였다. 한정보에서 두둑들사이에 째놓은 골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적지 않았다. 또한 장마철에 비물이 흐르거나 차있으면서 먹이풀들이 자라는 두둑을 깎아내거나 습해를 주군 하였으며 륜전기재들의 리용에도 지장을 주군 하던 골이였다.

유익성의 견지에서 분석해본 일군들은 두둑식재배면적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해당 단위들에 나가 골마다 먹이풀을 심기 위한 방도들을 찾았다. 그리하여 같은 면적에서 정보당 먹이풀생산량을 종전보다 늘이면서도 큰물피해를 막고 기계화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다른 하나는 이랑재배방법을 받아들인 포전의 먹이풀들사이에도 빠짐없이 씨붙임을 하는것이였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배게 심을수록 해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란다. 이 과정에 높이 자라면서 잎줄기가 커지게 된다. 먹이풀들은 알곡작물과 달리 잎줄기가 기본생산물인것만큼 배게 심는 방법이 정보당 생산량을 늘이는데서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다. 때문에 같은 면적의 포전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먹이풀을 재배하는가에 따라 정보당 생산량에서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일군들은 여기에 기초하여 배게 심는 방법으로 씨붙임면적을 늘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늘이고 재배방법을 혁신하여 겨울철먹이생산만이 아니라 풀먹는집짐승들의 방목도 할수 있게 풀판리용의 방법론을 찾은것도 긍정할만 하다.

일군들은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각종 먹이풀들의 품종과 영양원소함량, 풀먹는집짐승별소비량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그리고 정보당 생산량도 타산해보았다. 또한 콩과먹이풀만 계속 먹이면 풀먹는집짐승들에게서 헛배부름증과 같은 병이 발생하여 좋지 못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도 예견하였다. 그 과정에 방목을 하자면 콩과와 벼과의 먹이풀을 일정한 비률로 섞어 심어야 한다는 문제에 주의를 돌리였다. 일군들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의 련계밑에 그 비률을 3:7로 정하였다. 그리고 포전들에 덧뿌릴 먹이풀품종들과 씨뿌림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일정계획도 세웠던것이였다.

일군들은 모든 포전들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 목표를 제기하고 지대정리와 물도랑치기, 밭돌추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방도들도 내놓았다. 또한 먹이풀판조성단위들에서 풀먹는집짐승종자의 사양관리를 위해 우리주변에 자주꽃자리풀, 토끼풀등의 콩과먹이풀들을 심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어느쪽이 더 유익한가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낸 결과 일군들은 같은 면적의 먹이풀판에서 40%의 먹이를 더 생산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어떻게 비료효과를 높였는가

금강지도국돌격대에서

어떤 질이 담보된 흙보산비료가 필요한가. 이것은 흙보산비료생산전투를 앞두고 금강지도국돌격대에서 중요하게 론의되였던 문제의 하나이다. 사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지난해 돌격대에서는 중앙현장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새로 맡은 수십정보의 땅을 개간하여 먹이풀판을 조성하였다. 지도국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그 넓은 땅을 기계화포전으로 정리하였고 정보당 수십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준 다음 먹이풀씨를 뿌리였다. 그런데 들인 품에 비하여 먹이풀작황은 그리 시원치 못하였다. 특히 먹이풀의 초기생육조건이 잘 보장되지 못하였다. 원인은 땅속의 영양물질중에서도 린성분이 결정적으로 부족한데 있었다. 방도는 전반적인 지력을 골고루 높이는것과 함께 먹이풀뿌리들이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린성분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보충해주는데 있었다.

이것을 포착한 지도국일군들은 수십t의 과석(과린산석회비료)을 품을 들여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그 리용과 관련하여 이런 의견이 제기되였다.

과석을 포전에 직접 밑비료로 주자는것이였다. 량적으로 많으니 얼마든지 토양속의 린함량을 높여 먹이풀생산량을 늘일수 있다는것이 일부 사람들의 견해였다. 적지 않은 일군들이 여기에 공감을 표시하고있었다. 하지만 돌격대대장 최윤복동무는 흙보산비료에 과석을 섞어 리용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의문을 가지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그들에게 최윤복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라는것은 현시기 당의 요구입니다.》

그리고는 그 리유를 설명해주었다. 과석은 먹이풀의 생육에 필요한 린성분을 보충해주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포전의 흙과 직접 섞이면 비료속에 들어있는 풀림성린성분들이 식물이 흡수하기 힘든 형태로 전환되게 된다. 그러나 과석과 섞어서 생산한 흙보산비료를 리용하면 여러가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먹이풀의 뿌리활성을 더욱 높여줄수 있다. 또한 흙보산비료속에 들어있는 후민산에 의하여 린비료효과도 오래동안 유지될수 있다. …

과학기술적요구가 안받침된 그의 의견을 모두가 지지해나섰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명백해졌다.

당정책관철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는데서 기수가 되고 전위투사가 되자.

이런 각오와 의지를 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의 적극적인 련계밑에 흙보산비료생산과 관련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일군들은 과석과 흙보산비료원료와의 배합비률을 돌격대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특히 겹으로 된 비닐박막주머니를 만들어 리용하게 함으로써 추운 겨울철조건에서도 흙보산비료생산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들끓는 현장에 몸을 푹 잠그고 생산의 모든 공정들이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앞장에서 돌격대원들을 이끌어나갔다.

한줌의 비료를 생산해도 그것이 실지로 먹이풀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나하나 따져가며 품을 들이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조선인민군 김영근소속부대에서－

－직총중앙위원회돌격대에서－

돌파구로 내세운 세가지 연구목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는 높이 세운 축산물증산목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집짐승마리수를 늘이면서도 젖생산을 동시에 내미는데서 찾았다.

일반적으로 풀먹는집짐승 어미 한마리당 년간 고기생산량은 낳은 새끼마리수와 그것의 증체률로 계산된다. 여기서 소, 양, 염소는 새끼낳는 회수나 마리수가 다른 집짐승들에 비하여 매우 적기때문에 어미의 젖생산량까지 포함하여야 축산물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기본으로 하는 세포지구 축산기지에서 고기, 젖, 새끼생산을 함께 밀고나가는것이 축산물생산의 기본돌파구라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 세가지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과학기술적방도를 찾아나갔다. 우선 젖과 고기생산을 동시에 내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였다. 소와 염소인 경우 젖과 고기생산성이 높은 서로 다른 우량품종을 가지고 섞붙임을 하는것이 십분 가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필요한 우량품종을 확보하는것이다. 돌격대에서는 이미 확보된 우량품종들을 세포지구의 자연기후적조건에 적응하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종자들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특히 돌격대에서는 지난해 양의 새끼생산성을 1.3배로 높인 성과에 기초하여 올해에는 양의 새끼낳이회수를 종전의 1년에 1회로부터 2년에 3회로 늘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해 지혜를 합쳐나갔다.

다음으로 집짐승사양관리에서 먹이의 효과적리용과 관련한 기술적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었다.

집짐승들은 젖먹는 시기부터 젖을 뗀 다음 두달정도까지의 기간에 뼈와 근육조직이 가장 왕성하게 늘어난다. 이 시기의 사양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집짐승의 최대성장발육시기를 놓쳐 총적인 축산물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돌격대에서는 이것을 중시하고 어린 시기의 단백질 및 광물질먹이보장문제, 살찌우기단계에서의 집중적인 영양보충으로 증체률과 고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등 집짐승들의 생육단계별사양관리에 도움을 주는 연구사업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밤방 히엔드라스또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자

평양시버섯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버섯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5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지배인 김성남의 보고에 이어 책임기사 김순철, 기사 강정만, 로동자 공영태가 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잘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생산을 정상화하여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버섯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짜고들며 모든 작업을 과학기술적요구와 표준조작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공장의 특성에 맞는 버섯품종과 기질문제를 해결하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구사들과 현장기술자들과의 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실무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며 버섯싹형성을 균일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현실에서 은이 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맡은 설비들과 생산공정에 정통하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공장안팎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거두며 구내에 과일나무를 더 많이 심어 공장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이라는 당의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종업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장을 면모에서뿐아니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도 전국의 본보기로, 수도시민들에게 실지덕을 주는 실리있는 공장으로 만들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교육, 체육, 문학예술,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 단위들에서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교육, 체육, 문학예술,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보고와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승리자의 긍지와 신심드높이 뜻깊은 올해에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새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학생들을 백두산대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시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고등교육체계를 완비하여 지식경제시대를 떠메고나갈 유능한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종업원들도 궐기모임들을 가지였다.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교종별도달목표, 교육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정하고 그에 따르는 교과서, 참고서의 집필과 발행, 인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의 훈련열풍으로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쳐갈 필승의 기상이 평양체육단, 성천강체육단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세차게 나래쳤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국제경기마다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완강하게 벌려 우리의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림으로써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고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평양체육기구공장, 동대원체육기구공장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체육기자재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을 본받아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사상예술적경지를 개척하며 문학의 모든 형태와 종류의 작품들을 명작들로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선군문학의 혁신적면모를 뚜렷이 과시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적창작기풍을 세우고 명작폭포로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선구자,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정에 넘친 목소리들이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울려나왔다.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크면서도 볼 재미가 있는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영화창작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영화과학연구소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주체적립장에서 영화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립민족예술단, 함경북도예술단, 개성시예술단의 종업원들은 오늘의 사상전, 선전선동공세에 발을 맞추어 참신하고 진취적인 작품창작과 공연활동으로 전투장들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평안북도위생방역소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든 보건일군들이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보건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높이 받들고 치료예방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갈 결의가 평양시제2인민병원, 황해북도산원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표명되였다.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첨단의학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며 의료일군들이 높은 의학과학기술, 풍부한 림상경험과 함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성을 지니고 치료예방사업에 더욱 헌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순천제약공장, 신의주마이싱공장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의약품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상비약품, 대중약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한편 우리 식의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애국사업으로 힘있게 벌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뚜렷한 과학기술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과학전선은 의연히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할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학기술부문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뜻깊은 올해에 과학기술부문앞에 나서는 임무가 더욱 크고 무겁다고 생각한다.

부위원장 김정수: 올해 총공격전에서의 승리의 열쇠가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에 있다.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올해에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전략적목표수행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할것을 목표로 하여 많은 국가과제들을 편성하였다. 해야 할 일이 방대한 조건에 맞게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나라의 모든 과학기술력량과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모가 나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겠다.

기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들에 힘을 집중하게 되는가를 알고싶다.

국장 홍성춘: 농업부문에서는 정보당 수확고가 매우 높은 논벼와 강냉이품종육성, 세포지구축산기지에서 풀판조성과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진기술의 집중도입, 집짐승먹이첨가제의 국산화를 위한 능력이 큰 돼지, 가금먹이첨가제생산공정확립,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이기 위한 새 품종육성과 재배기술의 확립 등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며 축산물과 과일,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다.

수산부문에서는 위성정보해석에 의한 어황예보체계, 대출력레드등에 의한 불빛어로기술, 양어용먹이제조기술, 여러 종류물고기의 인공알깨우기기술을 연구도입하며 만능선과 전방향어군탐지기와 같은 현대적인 고기배와 어구들을 설계제작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력량을 집중하게 된다. 양말생산공정을 자동화, 무인화하고 유연창대직기부속품을 국산화하며 여러가지 기능성영양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질좋은 포도술개발 등을 목표로 한 경공업부문의 과제들도 적지 않다.

기자: 이 분야들에서는 이미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일정하게 이룩된 조건에서 잘 짜고들면 얼마든지 좋은 결실을 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된다.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데서는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가.

국장 리정철: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의 발전설비조립을 과학화하고 여러 수력발전소들에 물관리지원체계와 최량부하분배방법을 도입하며 화력발전소들에 순환비등층보이라와 무중유착화기술, 정밀주조에 의한 급수뽐프날개와 미소중유버너, 질좋은 강뽈과 라이너 등을 확대도입하게 된다.

이미 현실에서 그 효과성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는 고온공기연소기술과 석탄연소첨가제를 확대도입하여 중유와 석탄소비를 극력 줄이는것과 함께 전력계통관리의 콤퓨터화실현, 레드등을 비롯한 에네르기절약형전기설비들의 개발도입 등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절약하며 지열에 의한 건물랭난방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관성식적재운반설비와 륜환식바가지삭도, 마그네샤동발과 수직갱물푸기용 잠수뽐프를 비롯한 앞선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무연탄광들에 선탄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게 된다.

홍성춘: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도 할 일이 많다. 주체철용광로와 수직식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을 정상화하고 중형용광로에서 무연알탄에 의한 선철생산기술을 확립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망간철생산공정과 초고전력전기로용 흑연전극생산공정을 완성하고 경제기술지표들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무연탄과 갈탄의 가스화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령에네르기, 령탄소건축기술을 확립하고 나노콩크리트강화제를 개발도입하는것을 비롯하여 무게있는 과제들을 제기하였으며 채취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 기계공업부문에서 내세운 과제들도 의의가 큰것들이다.

특히 올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산림복구전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력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체육부문에서 선수선발과 훈련, 경기조직과 운영의 정보화, 과학화수준을 높이고 보건부문에서 고려의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고려약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하며 생물소편에 의한 진단기술, 줄기세포에 의한 재생치료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가게 된다.

기자: 과업이 참으로 방대한 조건에서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김정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여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앙양시켜주시였을뿐아니라 쑥섬에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을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고 계신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우리 과학기술행정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에 과학기술전당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가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겠다. 그리고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을 위한 지도와 장악추진을 짜고들고 국가적인 원격화상심의체계를 실현하며 2월17일과학, 기술자돌격대활동과 3대혁명소조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을 안속있게 벌려나가겠다.

책임일군들부터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 뚜렷한 과학기술성과를 안고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겠다.

기자: 훌륭한 결의를 반드시 실천하리라고 믿는다.

본사기자 려명희

생 명

◇ 과학전선부터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과학전선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과학전선은 그 어느 전선보다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우리 과학자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무겁다. 오늘날 과학연구사업은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이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내놓는 한건한건의 연구결과는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을 단호히 쳐갈기는 위력한 무기로 되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빛내여나가는 철벽의 성새를 이루고있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소장인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류성은동무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새길수록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도 부강번영도 다름아닌 우리 과학자들의 손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자각하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과학전선이 먼저 부글부글 끓어야 온 나라가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는다.

◇ 과학기술은 혁명과 건설에서 생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혁명과 건설에서 생명이라는것은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길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길도 다름아닌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시대에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강자가 되지만 놓치면 약자가 된다.

우리 나라를 상대로 벌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첨단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악랄하고 비렬한 제재책동의 궁극적목적도 다름아닌 우리의 명줄을 어떻게 하나 끊어놓으려는데 있다. 원쑤들의 극악한 봉쇄와 압력, 제재책동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혁명앞에 부닥치고있는 엄혹한 난관들을 우리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갈수 있는 길은 과학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과학기술이 더이상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있는 오늘까지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조건이 좋을 때 보자는 식으로 대한다면 언제 가도 남을 앞설수 없으며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은 기술식민지노예의 운명을 피할수 없게 된다.

시대와 력사가 묻고있다.

자주적인민으로 살겠는가, 노예가 되겠는가.

공화국의 공민이라면 이 물음앞에 애국의 량심, 공민의 의무감으로 대답해나서야 한다.

누구나 어디서나 과학기술로 승리하는 자주적근위병이 되자.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총공격대오의 앞장에 서야 할 기수, 전위투사들은 일군들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고심어린 탐구끝에 마련된 과학기술성과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동원리용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눈길과도 같은 탐구의 길을 걸으며 내놓는 소중한 연구결과들이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생명선을 이루는 세포가 되고 우리 일군들이 바쳐가는 사랑과 정, 진취적인 노력이 그것을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때 우리 조국은 지식과 기술의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미래를 향하여 더욱 활력있게 전진할것이다.

일군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맡고 사업하든 누구나 과학전선의 지휘관이라는 자각을 안고 과학기술발전을 최우선시하고 과학기술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근로자들을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한사람같이 일떠세워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함으로써 력사적인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보수주기를 2배이상 연장한 새로운 복합윤활제

녕원발전소에서

녕원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이곳 일군들이 자기 단위운영에 필요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과학기술로 설비정상화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는것이다.

대표적실례로 지난해에 뚜렷한 결과를 보고 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새로운 복합윤활제의 도입을 들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기가 없으면 산업을 움직일수 없으며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현시기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 있는 발전기들의 기술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대용량발전기들의 메달이 받는 무게가 수백t이라고 할 때 마찰현상을 개선하지 않으면 운전과정에 많은 짐이 걸리게 되며 이로 하여 작업온도가 올라가고 메달파손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발전기에 들어가는 윤활제를 개선하는것은 수력발전소운영을 정상화하는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수t의 윤활제가 들어가는 대용량수력발전기를 정비할 때마다 원가가 대단히 비싼 많은 량의 윤활제가 소비되였다.

녕원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종전의 방법으로는 전기생산을 정상화할수 없다는 확고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중앙광업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복합윤활제에 주의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과학자들이 개발한 복합윤활제인 고순도이류화몰리브덴은 누름세기가 높고 마찰결수가 작으며 닳음견딜성, 금속겉면과의 부착성이 좋은 특수윤활제이다.

중앙광업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전력증산을 위해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녕원발전소로동계급의 투쟁을 과학기술로 떠밀어주었다. 그들은 수력발전기의 운전과정에 메달에 실리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축과 메달의 마찰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나갔다.

분석에서 확신성을 가진 과학자들은 축과 메달에 들어있는 윤활제를 깨끗이 청소하고 자기들이 개발한 복합윤활제를 메달들에 홈을 내고 삽입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삽입홈의 배치설계를 과학적으로 하는것이였다. 메달들의 크기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메달들마다 삽입홈의 위치가 서로 달라야 했다.

메달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삽입홈의 위치를 정한다면 매 메달에 걸리는 부하가 같지 않기때문에 발전기효률을 최대한 높일수 없었다.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에 기초하여 제일 큰 메달의 삽입홈들의 간격을 3㎝로 정하였다면 작은 메달의 삽입홈들의 간격은 그보다 작게 하였다.

다시말하여 삽입홈의 위치와 깊이를 메달의 크기에 알맞게 정하였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현장일군들과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새로운 복합윤활제를 가지고 발전기주축기동시 온도를 52℃이하로 보장하였으며 베아링수명을 2배로 늘이고 발전기축메달보수주기를 2배이상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날이 갈수록 이들이 개발한 복합윤활제의 우월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곳 일군들은 발전소의 다른 발전기에도 새로운 복합윤활제를 도입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지금 녕원발전소에서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발전설비의 정상운영을 담보할수 없다던 기존관념을 깨버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개발한 첨단제품의 도입으로 발전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전구간 이음목없는 철길이 뻗어간다

철도성아래 여러 철도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철도성의 일군들이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의 일군들,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지난 기간 수백m 이음목없는 철길을 부설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전구간 이음목없는 철길을 부설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벌리고있다.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철길은 수십m짜리 레루를 이음판과 볼트로 련결한 이음목구조로 되여있다.

일반적으로 렬차가 레루이음목을 지날 때마다 덜컥하는 소리가 나면서 렬차와 로반에 호상 충격힘을 주어 손상을 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자면 기온차에 의한 레루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레루를 이음목없이 길게 부설하여야 한다.

이음목없는 철길을 부설하면 렬차의 운행저항이 8~15%나 줄어들어 렬차의 주행장치보수와 철길의 일상유지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30%정도 줄일수 있으며 철길 1㎞당 강재는 수t정도 절약하면서도 레루의 수명을 약 1.8배로 늘일수 있다.

지난 시기 철도성에서는 레루맞댐용접기술을 개발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철도과학분원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이동식레루맞댐용접차와 고정식레루맞댐용접기를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훌륭히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철도성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구간의 철길을 수백m정도로 용접한 이음목없는 철길로 개건하였다.

지난해에는 개천철도국에서 합리적인 부설공법과 철길보강방안을 세우고 최소반경이 수백m인 곡선구간과 철다리, 각종 경사구간이 70%이상이나 되는 염주—내중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구간 이음목없는 철길부설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전구간 이음목없는 철길을 부설함으로써 철길이음목에서 차바퀴충격으로 인한 철길과 차량의 파손, 소음을 줄이고 수많은 이음판, 이음목볼트에 소비하던 수십t의 강재를 절약하였으며 철길의 강도와 렬차의 달림안전성을 보다 높일수 있게 되였다.

평양철도국에서도 신련포—은산, 력포—류소, 정방—사리원사이의 구간에 대한 이음목없는 철길부설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이미 철도과학분원의 과학자들은 전국의 철도구간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레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철길의 안정성평가, 레루의 합리적인 길이설정 등 이음목없는 철길부설을 진행해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를 마련하였다.

지금 여러 철도국들에서 자기 단위의 여러 철길구간들에서 진행한 레루맞댐용접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곡선철길과 철길구조물을 비롯한 각이한 조건에서의 레루맞댐용접기술을 더욱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평양철도국, 개천철도국을 비롯한 여러 철도국의 일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조속에 과학자들의 과학연구성과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여 전구간 이음목없는 철길이 줄기차게 뻗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질좋은 버섯종균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과학연구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새형의 토양산도측정기 제작

신의주농업대학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첨단을 돌파하여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최근년간 신의주농업대학에서 새형의 토양산도측정기를 개발하여 도의 20여개 시, 군들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학의 연구집단은 금속전극사이에서 일어나는 토양의 미소전위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토양산도측정기를 만들어 내놓았다.

이들이 이번에 개발한 토양산도측정기는 종전에 나온 수감접촉식 토양산도측정기에 비하여 좋은 점이 많다.

새로 개발한 토양산도측정기는 수감부에 넣은 한소편소자에 프로그람을 입력하여 산도를 측정하고 사용전원은 전국의 미소전위차를 리용하게 되여있다. 그 크기 또한 담배갑만 하여 아무 장소에서나 쉽게 리용할수 있다.

김광철, 배명진, 박영호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은 연구기지를 꾸리고 교원, 연구사들을 첨단기술제품개발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정보연구실 실장 오성일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구조가 간단하고 쓰기도 편리하며 농작물재배는 물론 원림조성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토양산도측정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리고 룡천군과 운전군을 비롯한 도안의 20여개 시, 군들에 나가 연구성과를 도입일반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새로 개발한 토양산도측정기는 농장들에서 토양의 pH값을 간단하게 측정하고 그에 맞게 흙보산비료나 카리티탄비료를 비롯한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농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있다.

연구집단은 기발한 착상으로 벼와 강냉이, 콩을 비롯한 농작물의 수분을 측정할수 있는 수분측정기도 개발하고 도의 시, 군들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이 연구개발한 수분측정기는 종전의 수분측정기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임의의 장소에서 수분측정을 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농업부문과 량정부문 일군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특파기자

토양학연구소에서—
지혜와 열정을 바쳐간다.
—농업과학원 본사기자 찍음

농업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앞날을 내다보며 근기있게 내밀어

3대혁명붉은기 라선차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라선차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구내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문화선전실과 청년학교를 비롯한 대중교양장소를 잘 꾸리였으며 그를 통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이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산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도 손색없이 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사업소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였다.

그뿐이 아니다.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받들어 사업소일군들과 운전사들은 시의 농촌뻐스, 통학뻐스운영을 정상화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하다면 이름없던 사업소가 오늘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소문나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10년전이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놓고 한조항한조항 따져보던 초급당일군은 한동안 결의목표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결의목표에 반영된대로 고장난 고압연료뽐프시험대를 살리자고 해도 결정적으로 기술력량이 부족하였다. 더우기 시험대는 사업소에 하나밖에 없는 설비였다.

시험대를 살리기 위해 다른 단위에서 한다하는 기술자들을 데려왔지만 그들도 자신이 없어하였다. 그렇다고 일부 일군들의 의견대로 시험대를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닐수 없는 형편이였다.

그러한 때 사업소의 한 평범한 로동자가 고장원인을 밝혀내고 시험대를 살려내는데 크게 한몫하였다. 알고보니 그는 통신교육망에 망라되여 고등교육과정을 마친 대학졸업생이였다.

지배인 송명진동무는 이 사실을 놓고 초급당비서와 마주앉았다.

초급당비서의 말이 옳았다. 지배인은 무턱대고 우에다 대학졸업생들을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 종업원들을 기술의 주인, 사업소의 주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지배인은 종업원들이 고등교육과정을 마치자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수 있지만 사업소의 오늘만이 아닌 래일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그들을 공부시키기로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지배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결의목표에 보충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로력이 긴장하였지만 작업반들에서 향학열이 높은 로동자들을 선발하여 대학에 보내기로 하였다. 특히 제대군인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서도록 떠밀어주었다.

사업소일군들은 자기들이 결심한 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게 모든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었다. 우선 종업원들속에 오늘날의 륜전기재들은 기계, 전기, 전자공학 등 여러 분야의 선진기술이 도입된 집합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켰다. 그다음 각자가 소질과 취미에 맞게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하였다. 물론 현존로력으로 사업소를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많은 종업원들을 공부시킨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럴수록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사업소에서는 많은 종업원들이 대학공부를 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일군들은 그들이 대학공부를 하고있는 조건에 맞게 책임기사, 수리작업반장을 비롯한 능력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 로동자, 기술자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의의있게 자주 조직하였다.

빠른 시일에 전반적인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일터에 차넘친 과학기술학습의 열풍속에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은 날이 다르게 뛰여올랐고 차수리와 부속품생산에서는 전에 없던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일군들부터가 실력가로 준비되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스스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기술혁명수행의 앞장에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자동차의 발전추세에 대하여 환히 꿰들고 사업소륜전기재들의 특성을 잘 알고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단위에서 새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 단위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직심스럽게 노력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피타는 노력은 기술혁신성과로 이어졌다. 산소수소발생기의 수자조종실현, 한소편콤퓨터에 의한 고속자동충전기제작 등 많은 기술혁신성과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오늘 사업소는 전문공장 못지않게 훌륭하게 꾸려진 차수리기지에서 륜전기재들에 대한 수리 및 정비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있을뿐아니라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설비들을 리용하여 부속품들을 가공하고있다.

그 나날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창조의 나래를 달아주기 위하여 전국의 여러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자주 조직하여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공부를 마친 로동자들이 졸업증을 받아안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은 사업소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해결에서 큰 몫을 맡아하였고 점차 사업소기술력량의 주력을 이루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새 집이 일떠서면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우선적으로 차례지도록 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책임적으로 풀어주었다. 이것이 기술자, 기능공들을 더욱 분발시킨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멀리 앞을 내다보고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근기있게 내밀것을 결심하고 종업원들을 대학으로 떠밀어보내던 때로부터 어느덧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오늘 사업소는 그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많은 종업원들이 창의고안명수로 자라났으며 그들속에서 나온 여러건의 새 기술혁신안들은 여러차례의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체의 튼튼한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10년전에 비하여 몰라보게 강화되였다.

현대적인 수자조종설비들을 갖춘 수리기지에서는 륜전기재부속품들을 마음먹은대로 가공해내고있으며 자체로 꾸린 다이야재생기지에서는 낡은 다이야를 되살림으로써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튼튼한 과학기술력량축성, 이것은 사업소의 성과와 발전에 큰 밑천으로 되고있다.

스스로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사업소는 얼마전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은 무슨 일이나 멀리 앞을 내다보고 일단 계획한 일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근기있게 내밀 때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자랑찬 위훈을 수놓아갈 신심에 넘쳐

새해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와 강원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 기어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 열의에 넘쳐 새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농사차비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새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의 협동농장들에서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유기농법, 앞선 영농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리고 거름생산과 모판준비, 모판자재와 물확보를 비롯한 당면한 농사차비를 다그치도록 경제조직과 기술적지도를 따라세우고있다.

신의주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륜전기재들을 동원하여 남민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의 농장포전들에 거름을 실어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면서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고있다.

시에서는 석하, 토성, 성서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거름생산과 모판자재준비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룡천군에서 새해농사차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군들을 협동농장들에 내보내여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새해농사차비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신암, 룡암포협동농장이 새해농사차비에서 앞서나가고있다. 신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밑에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삭주군에서도 새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읍, 내옥, 옥강, 금부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의 모든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할 열의에 넘쳐 정초부터 새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운전군과 정주시, 구성시, 선천군과 동림군, 염주군과 철산군을 비롯한 시,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새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의 협동농장들에서 새해 첫달 보름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에 달하는 거름을 확보하고 니탄캐기를 다그쳐 흙보산비료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협동농장들에서 새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당면하게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기술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도의 농촌들에서 새해농사차비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원산시와 문천시, 천내군과 안변군을 비롯한 도의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이 불고있다.

천내군에서는 새해농사차비에서 기본을 유기질비료생산에 두고 군의 모든 력량을 이 사업에 집중시키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나가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도록 이끌어주면서 기관, 기업소별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유기질비료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안변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운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거름생산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작업반, 분조들에 생물활성퇴비와 흙보산비료생산과제를 정확히 주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금강군과 고성군에서는 지난해농사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군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흙보산비료와 자급비료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온성군 왕재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온 탄전이 석탄증산으로 들끓는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첫달 석탄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13일현재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보내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일군들은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석탄증산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모든 일군들이 갱막장들에 들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담겨진 사상과 정신을 탄부들에게 해설침투하며 그들을 석탄증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갱막장들에 필요한 설비, 자재, 부속품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특히 동발나무생산전투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온 탄전이 석탄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득장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새해벽두부터 기름진 탄밭을 타고앉아 련일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지난해에 혁신을 일으킨 그 기세로 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이끌고있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2갱, 5갱, 3갱, 1갱들에서 석탄생산실적이 부쩍 뛰여오르고있다.

2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난해말 화력탄보장을 맡은 단위들의 탄부들에게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13일현재 일정계획보다 1.4배의 석탄을 캐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5갱, 3갱,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며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막장들을 타고앉은 룡산탄광의 일군들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석탄증산투쟁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그들과 어깨겯고 석탄증산을 위한 총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일군들과 탄부들의 힘찬 투쟁으로 일 석탄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속에 6갱과 1갱에서는 매일 화력탄생산을 1.2배로 넘쳐 수행하며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명학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수천척지하막장에서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석탄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막장의 거리가 멀어지고 운반조건이 불리해지는데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앞선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1.3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는 2갱에 력량을 집중하여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모든 갱들에서 이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득장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못쓰게 된 탄차들에 대한 수리정비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자체로 많은 탄차를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어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10만산대발파 진행

룡매도간석지건설장에서

룡매도간석지건설장에서 지난 5일에 10만산대발파가 진행되였다.

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룡매도간석지 6호방조제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황해남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6호방조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경제조직사업과 전투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의 간석지건설자들은 지난해 11월초부터 발파구역을 선정하고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을 벌렸다.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암질상태와 지형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공사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일정계획을 드팀없이 밀고나갔다.

발파구멍뚫기를 맡은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낮에 밤을 이어 치렬한 전투를 벌렸다. 그들은 착암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짧은 기간에 발파구멍뚫기를 끝냈다. 하여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1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룡매도간석지건설장에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간석지건설자들은 맵짠 바다바람을 맞받아 치렬한 돌격전을 들이대며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많은 량의 돌과 흙을 처리하고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들끓는 현장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지배인 김제철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은 륜전기재의 만가동보장에 공사의 속도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현장에 깊이 들어가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자동차운전사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6호방조제공사를 힘있게 내밀도록 하고있다.

간석지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새해에 들어와 며칠동안에만도 4만여㎥의 돌과 흙이 처리되고 사나운 날바다를 맞받아 백수십m의 방조제가 뻗어나갔다.

특파기자 리승철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함경북도에서

합경북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강철전선에 수백t의 파철을 모아 보내준데 이어 지난 5일과 6일에도 많은 량의 파철을 수집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철강재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열의에 넘쳐있는 금속공업부문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년초부터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파철수집사업에 누구나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모아들인 파철을 제때에 금속공장들에 실어보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수산관리국, 도품질감독국,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파철수집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김책시와 화대군, 명간군, 경흥군, 부령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일군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서 대중을 불러일으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많은 량의 파철을 수집하였다.

얼마전 이곳 시, 군들에서는 수집한 파철을 화물자동차들에 실어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청진시와 회령시, 명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파철수집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많은 량의 파철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청진철도국 일군들과 사령원들은 파철들을 제때에 금속공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수송조직을 짜고들고있다.

이에 고무된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질좋은 인민소비품생산에 박차를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경공업을 현대화하여야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단위이다.

장명실, 박영애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공장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안영진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들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타올직기개조를 위한 설계를 완성하고 직기개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공장의 기술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타올직기조종프로그람을 높은 수준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직기들이 개조되는데 맞게 그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였다. 오정학, 지봉춘, 봉정춘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의 오랜 기능공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크게 한몫하였다.

공장에서는 직포현장의 습도자동조종체계와 염색 및 건조공정의 자동온도조종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얼마전 공장에서는 개조된 타올직기의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타올직기들이 개조됨으로써 많은 시간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타올무늬수를 마음먹은대로 늘여 문양고운 타올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질좋은 타올제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혜산신발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혜산신발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겨울신발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량강도솜장화를 질적으로 잘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량강도솜장화작업반원들과 재단1, 2작업반원들은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기대마다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신발창을 겨울철특성에 맞고 사람들이 리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데 품을 넣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제화작업반과 준비작업반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과 함께 증부가마, 초미분쇄기개조를 비롯한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건물개건을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공장에서는 새해 첫달에 질좋은 겨울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질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선교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간다.
—원산사범대학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선경을 자랑하는 영광의 땅

개성시 박연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개성시 박연협동농장마을이 사회주의선경을 자랑하며 보다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농장을 찾으시여 명승지에 위치하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도로관리와 주변정리를 잘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김일량, 리근택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 도로와 그 주변에 대한 정상관리를 잘하고 자연피해막이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는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농장에서는 작업반들마다 도로담당구간을 정해주고 열흘에 한번씩 도로관리사업에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명승지로 향하는 도로들이 자연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최근에만도 농장에서는 위험방지석 2000여개를 새로 세우고 수십㎥의 옹벽공사를 진행하여 도로의 면모를 한층 일신시켰다.

농장에서는 명승지의 풍치에 어울리게 나무를 심는 사업도 놓치지 않고 내밀고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도로주변에 수백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었다.

농장에서는 명승지에 위치하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장마을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해에 농장에서는 현대적미감이 나는 종합편의봉사시설을 갖추어놓았을 뿐아니라 농장에 흔한 벼겨로 연료문제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농장의 편의봉사시설은 명승지가까이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이곳으로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새 품종의 잔디밭을 수백㎡나 조성하고 공공건물들도 개건보수하여 농장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영광의 땅 박연협동농장은 명승지의 수려한 풍치와 어울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선경으로 나날이 변모되여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신념과 의리로 빛내여가는 삶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화강석분광산 지배인 리영선동무

지난 정초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정문에 모셔진 백두산3대장군을 형상한 대형모자이크벽화를 비롯하여 강선땅의 곳곳에 자리잡은 혁명사적지들을 반나절이나 품들여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지난 24년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온넋과 심혈을 다 바쳐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화강석분광산 지배인 리영선동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사적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강선땅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혁명사적지들과 혁명사적건물들이 류달리 많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혁명사적단위들을 더 잘 꾸리는데 필요한 많은 량의 화강석가공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해 돌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돌격대를 뭇고 여러가지 보장대책을 세워주었다. 그 돌격대의 첫 참모장이 바로 리영선동무였다.

그때부터 그의 한생은 돌가공전투와 함께 흘러왔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것이 생소하였다. 리영선동무는 우선 돌가공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오랜 기능공들도 무색케 하는 돌가공전문가가 된 그는 해박한 지식과 빈틈없는 작전으로 여러 대상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화강석절단, 가공 및 연마과정은 물론 돌제품설치작업에서도 그는 질보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렸다. 어느 한 혁명사적건물의 교양마당에 판석을 깔 때 한쪽 구석에 있는 몇개 판석의 위치가 달라진것을 보고 즉시에 교체하도록 한 이야기며 가공된 돌제품에 자그마한 흠집이 있는것을 보고 돌격대원들을 교양하며 자기가 직접 재가공한 이야기, 그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길에 바쳐가는 그의 순결한 량심의 발현이였다.

한해두해 세월이 흘러 돌격대원들은 점차 교체되고 지휘관들도 자기 일터로 돌아갔지만 리영선동무만은 돌가공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나이도 들어가는데 좀 쉬운 일터로 옮기는것이 어떤가고 권고할 때에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길에 내 한생을 깡그리 바쳐가리!

이것이 그의 가슴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한생의 목표였다.

자체로 돌가공설비를 제작하느라 몇달을 현장에서 고심하고 돌격대원들에게 안착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온실이며 집짐승우리를 건설하느라 또 몇달씩 나가살다싶이 하는 남편을 보다 못해 그의 안해가 몸도 좀 돌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은근히 걱정할 때에도 그는 헌헌히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강선땅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사적비들을 더 정중히 일떠세우고싶은것이 내 마음이요. 아직 할 일이 산더미같은데 내가 쓰러질것 같소? 일없소. 내 몸은 내가 잘 아오.》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비분에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12월의 그 나날에 그는 더욱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다듬고 일떠섰다. 그는 자기앞에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새 일감을 찾아 통이 큰 작전을 펼쳤다.

지난해 9월 강선땅에 사연깊은 혁명사적비를 새로 건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그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달려나와 헌신의 구슬땀을 아끼지 않았다.

리영선동무는 오늘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오직 한길에 자신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독자의 편지

그 진정이 고맙습니다

저는 특류영예군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우리 영예군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는 한 인민보안원의 고마운 소행을 널리 소개하고싶어서입니다. 그가 바로 순천시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 계영식동무입니다.

계영식동무는 명절날과 기념일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한 각종 도서들, 영양식품들과 약재 그리고 생활필수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안해와 함께 저의 가정을 찾아오군 합니다.

땔감이 떨어질세라 마음을 쓰고 저의 생일날이면 성의껏 마련한 식료품들과 털내의, 솜옷을 내놓으며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따뜻이 위로해줄 때마다 그 진정에 감동되여 눈굽을 적시군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저의 집을 새 집처럼 꾸려주기 위해 달라붙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체험한 감동적인 사실들은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맡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속에서도 영예군인의 집수리에 필요한 세멘트와 모래, 흔석을 비롯한 건설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뛰여다니던 일이며 부엌을 안해의 마음에 들게 꾸려주기 위하여 타일의 문양과 색갈에도 마음을 쓰던 일, 방안이 환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다고 하면서 밝고 문양고운 레자를 깔아주고 제가 불편해할세라 나들문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돌리던 뜨거운 진정…

안팎으로 완전히 새로와진 저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계영식동무의 소행을 두고 정말 쉽지 않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 사회를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이런 참된 인민보안원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습니다.

순천시 순천동 36인민반 황승억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지난해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그칠새없이 벌려놓은 대규모의 전쟁연습들로 하여 항시적으로 긴장상태가 고조되였으며 그로 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흐려지고 전쟁위험은 날로 커갔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해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끊임없이 벌리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의 길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에 도전해나서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련합체계가 존재하는한 《훈련은 계속될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벌리는 훈련은 《방어적》인것이며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둘데 대한 우리의 호소가 《리치에 맞지 않는다.》고 떠들었다. 올해에도 외세와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북침전쟁연습들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려는 남조선당국의 기도가 벌써부터 명백해지고있다. 실제적으로 남조선에서는 새해벽두부터 각급 군부대들이 동원된 가운데 우리를 자극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이 도처에서 요란하게 벌어졌다. 지난 8일에도 남조선군부는 동서해에서 일제히 해상전투단실탄사격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13일부터 14일사이에는 동해에서 미해군과 함께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긴장을 격화시켜 북침핵전쟁을 도발하려는 고의적인 책동으로서 민족의 단합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선 해내외 온 겨레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전쟁불장난소동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근본요인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은 울리지 않고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공고한 평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조선반도에서는 정전상태가 계속 유지되고있으며 따라서 전쟁이 임의의 시각에 재개될수 있는 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은 사실상 팽팽한 풍선을 터뜨리는 예리한 칼날이나 다름없다. 더우기 조선반도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서로 날카롭게 대치되여있다. 이런 속에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는것은 화약고옆에서 불장난을 하는것과 같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여 벌어지는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군사적충돌과 전면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이고 적대행위이며 침략기도의 발로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수십년전부터 해온 《방어》적이며 합법적인것이라고 떠들고있는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북침을 노리고있다. 연습들의 규모와 내용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이 계속 감행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은 고조되고 핵전쟁위험도 더욱 증대되게 될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어느때나 찾아오는것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북남쌍방이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조성을 위해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온 겨레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는 분별없는 행위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전쟁불장난소동은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은 미국에 의해 산생되였다.

우리 민족을 북과 남으로 갈라놓고 대립시키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우리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침략적목적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철수시킬 대신 선제공격형으로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군을 련합군사령부의 틀거리에 비끄러매고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조선반도가 지난 수십년간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온것은 이와 관련된다.

세계제패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기의 군사적존재를 계속 유지강화하는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기 위한 구실을 얻기 위해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긴장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북남사이에 대화가 열리고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고조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리는것도 이와 관련된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미국은 《북핵위협》과 《도발대비》의 간판밑에 최신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최근에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북남관계개선노력이 적극화되자 뚱딴지같은 《싸이버공격》설을 운운하며 새로운 반공화국제재를 실시하는것으로 긴장격화에 부채질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침략정책에 추종하여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화해와 단합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위협》으로, 총부리를 맞대고 싸워야 할 《주적》으로 대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전쟁불장난을 일삼는다면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완화시킬수 없고 종당에 빚어낼것은 핵전쟁의 재난뿐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자국의 침략적리익을 위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도발을 꿈꾸는 미국의 장단에 계속 놀아난다면 피해를 입을것은 우리 민족뿐이다.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북침전쟁책동은 당장 중지되여야 하며 조선반도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북침불장난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이 종식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근원이 사라지게 될것이며 관계개선의 중대한 돌파구가 열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북침전쟁연습들을 전면중단하는 실천적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심 철 영

남조선언론들 주장

남북대화의 주요장애요인

남조선언론들이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반공화국삐라살포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8일 《경향신문》은 당국이 삐라살포를 주동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문은 6일 법원이 북에 대한 삐라살포를 막는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10월 북의 고위인사들의 남측방문으로 마련되였던 화해분위기도 결국 삐라살포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하면서 신문은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모호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한국일보》는 8일 새해에 들어와 고조되였던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삐라살포행위로 허물어지고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을 겨냥한 삐라살포는 남북대화의 주요장애요인으로 되고있지만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옳바른 립장을 취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삐라살포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삐라살포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에만 《진정성》을 운운하는것은 실속이 없는 자세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이날 남조선신문 《한겨레》도 당국이 삐라살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문은 삐라살포를 막을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립장이 바뀌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삐라살포를 막는것이 적법하다는 《국회》의 요구에 이어 여당내에서도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삐라살포를 제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삐라살포에 대해서만 유독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정부》의 주장을 일축한것이며 보수단체들의 불장난이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전쟁위험까지 부추기는데도 구경만 하고있는 《정부》를 질타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북관계개선으로 군사적, 정치적긴장을 완화하는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9일 《서울신문》은 북에 대한 삐라살포로 남북간 대화분위기에 난관이 조성되였다고 하면서 남북사이의 대화를 가로막는 삐라살포는 마땅히 자제하는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KBS》방송도 삐라살포문제로 남북이 접촉조차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될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화통일주장을 범죄시하는 당국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2일 재미동포교수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재미동포교수 신은미가 북에 가보니 우리와 같은 한겨레가 살고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한 《죄》로 강제추방당하였다고 밝혔다.

남과 북이 같은 언어와 력사를 가지고 《아리랑》을 같이 부르는 한민족이므로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이 《죄》로 몰리게 된것은 현 집권자가 《죄》라고 규정했기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지금 남조선은 집권자의 말에 따라 모든것이 좌우되고 법치가 완전히 포기된 사회로 되였다고 개탄하였다.

집권자가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생각으로 《통일》을 운운하는지 알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남과 북이 한형제, 한동포라고 말한것도 범죄시된다면 집권자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남조선진보단체성원들 롱성투쟁에 돌입

남조선의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진보단체성원들이 8일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당국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당국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데 이어 진보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탄압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현 《정권》이 정당파괴에 이어 눈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남북관계파탄과 동족대결정책이 《종북》몰이의 근간으로 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부정협잡으로 당선된 현 《정권》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친미사대매국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모든 면에서 《유신》독재를 철저히 닮았다고 단죄하였다.

집권자가 《유신》독재에로의 복귀를 시도하고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유신》독재반대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불씨가 되며 현 《정권》의 공안통치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롱성에 들어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유신》독재부활을 획책하는 현 《정권》을 끝장내자고 호소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성원들은 롱성투쟁에 돌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는데서 애국적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9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거족적운동에 힘차게 합세해나설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조선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호소에 접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지금 북받치는 격동과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설 불타는 결의로 끓어번지고있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북과 남이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과업과 방도들은 이국땅에서 장장 70년동안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으면서 통일을 애타게 갈망해온 우리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통일대강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대강을 가슴뜨겁게 새기면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6.15자주통일시대의 환희와 감격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제2의 6.15시대가 펼쳐진다는 신심으로 가슴벅차오르고있다.

그럴수록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모독하고 방해하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은 우리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70년세월 우리 겨레에게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들씌워온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무모한 적대행위에 광분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북침전쟁연습의 강행을 로골적으로 공언해나서는가 하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삐라살포놀음을 벌리면서 체제대결에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과 반통일책동을 계속한다면 온 민족의 규탄과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더이상 대세의 흐름,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지 말아야 하며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호소와 온 겨레의 기대에 진정으로 호응해나서야 한다.

조국의 자주통일과 강성번영을 위한 애족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해외통일력량을 묶어세우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한층 높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여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특색있게 기여할것이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6.15공동선언발표 열다섯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일제식민지통치와 민족분렬의 고통속에 살아온 모든 재일동포들이 자주적통일을 성취하는데 합세해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는데서 애국적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3대위기속에 국제적주목을 끄는 영농방법

환경위기, 식량위기, 물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3대위기들이다.

환경위기를 산생시킨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삶의 터전과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할뿐아니라 식량위기와 물위기를 조장격화시키는 촉매제로 되고있다.

지난해 세계경제연단의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식량위기, 물위기를 2014년의 최대위협으로 선정한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다.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도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영농방법들이 적극 개발되여 은을 내고있다.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토양퇴화와 유기농법

세계토양의 33%가 퇴화되여있다. 이것은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이 발표한 자료이다. 토양퇴화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 2050년에 가서 세계적으로 인구 1인당 부침땅면적은 1960년수준의 25%정도밖에 안될것이라고 한다. 무심히 대할수 없는 사태이다.

인류가 출현하여 수백년이 지나서야 2만명에 이르렀던 세계인구가 10억명을 기록한것은 19세기 초엽이였다. 21세기에 들어설 때 세계인구는 60억명에 달하였다.

미국인구조사국은 올해 1월 1일로 세계인구가 72억명을 돌파하였다고 전하였다.

인구장성에 따라 높아가는 식량수요가 농경지에 대한 수요에로 이어진다는것은 명백한 리치이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의 생활밑천인 토양의 퇴화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안고있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토양퇴화는 많은 경우 인간의 활동에 의해 빚어지고있다. 토양의 산성화와 영양물질의 소모, 오염 등이 그 실례이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법이 널리 도입되고있다.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농사에 리용하면 땅이 산성화되고 농작물의 생육과 소출에는 물론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이와 달리 각종 유기질비료와 생물농약, 천연광물질을 리용하는 유기농법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지력을 높이면서 농업생산을 늘이게 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꾸바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나라였다.

당시 꾸바는 비료나 뜨락또르용연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쏘련의 붕괴는 이러한 물자들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꾸바의 농업발전에 막대한 후과를 미치였다. 꾸바정부는 나라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농물자의 수입의존성을 극복하면서 유기농법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수십년세월 유기농법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꾸바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비단 꾸바만이 아니다.

한 국제조사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2010년에 유기농법을 도입한 나라들의 수는 2009년의 74개로부터 84개로 늘어났다. 2010년에 유기농경지의 면적은 세계적으로 1999년보다 3배로 늘어났다.

인디아는 전국적으로 유기농법을 장려하기 위해 생물비료와 생물살충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보조금을 주는 등 재정적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우간다와 메히꼬, 브라질을 비롯한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유기농법에 의한 식량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세계적으로 유기농법을 도입하고있는 농민들중의 약 80%가 발전도상나라들에 있다.

산림파괴와 림농복합경영방법

인류의 농업력사를 돌이켜보면 일정한 면적의 산림을 벗기고 화전을 일구어 알곡을 심었다. 이런 방법으로 산림토지를 리용하였다. 화전농법은 지금도 존재하고있다.

문제는 산림을 파괴하여 농경지를 늘구는 경영방법이 산림황폐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산림의 생태봉사기능을 저애한다는데 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가 지구온난화에서 벗어나자면 인류가 많은 부침땅을 다시 산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림농복합경영방법은 산림파괴를 막고 산림토지의 리용률을 높여 식량생산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유력한 토지관리방법으로 인정되고있다. 나무와 농작물이라는 서로 다른 식물들을 그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립체적으로 재배하면 빠른 기간에 토지피복률을 높이므로 비, 바람에 의한 토양침식을 막고 파괴된 산림생태계를 짧은 기간에 회복할수 있다.

보호대책이 세워져있지 않는 밭에서의 흙모래류실량은 그 두께가 한해동안 평균 0.2㎝이상(정보당 20㎥이상)에 달한다. 이것은 1㎝두께의 토양생성이 250년정도 걸리는것을 고려할 때 매우 큰 손실로 된다.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여 보호띠식으로 경제적가치가 큰 식용열매나무들을 심고 그 밑에 농작물을 배합하여 심으면 토양의 침식과 퇴화를 막을수 있다.

이모저모에서 좋은 점이 많은 림농복합경영방법에 대한 연구와 보급사업은 20세기부터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1977년에 국제림농복합경영연구리사회가 창설되였다.

국제림농복합경영연구리사회는 《림농복합경영체계》, 《현대림농복합경영》을 비롯한 정기간행물들을 출판하고있다.

이 경영방법의 광범한 도입을 목표로 여러 나라들에 시험연구기지들이 꾸려졌으며 전문가양성사업도 진행되고있다.

현재 100여개 나라들이 림농복합경영기술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아시아는 이 경영방법의 주요발원지의 하나이다.

1950년대에 타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 《통야》라는 경작방법을 받아들여 유자나무와 벼, 담배사이그루재배를 진행하였다.

1991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림농복합경영체계망이 설립되여 운영되고있다. 이 지역을 위한 《림농복합경영지도서》도 출판되여 그 보급사업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대학들에 림농복합경영과정안을 내오고 2년에 한번씩 연구토론회를 조직하고있다.

지난 시기 이 경영방법은 주로 열대지방에 위치한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농촌지역의 빈궁청산을 위해 많이 도입되였다.

오늘에 와서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농업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물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도입되고있다.

가뭄과 물절약형농법

세계가 물부족에 시달린지는 오래다. 지구겉면의 3분의 2가 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실지 리용할수 있는 물자원은 극히 제한되여있다. 해마다 늘어만 나는 물사용량, 더우기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가물피해는 세계적인 물위기에 키질하고있다. 앞으로 물이 원유보다 더 귀한것으로 될것이라는 예평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1950년대부터 적은 물을 가지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였다. 중동의 한 지역의 실례가 그러하다. 기후가 건조한 이 지역 사람들은 물의 효과적리용을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물과 비료를 결합한 《수비관개》법이 개발되였다.

《수비관개》법은 물과 비료주기를 동시에 실현할뿐아니라 식물이 수분과 비료를 최대한 직접 흡수할수 있게 한다고 한다. 이것을 도입한 결과 물과 비료를 각각 50%, 80% 절약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물방울식관수체계로 물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있다. 여기에 쓰이는 물은 주로 저장하였던 비물, 정화된 공업용폐수와 바다물이라고 한다.

특히 연구사들은 이슬을 수집할수 있는 비닐판을 개발하여 식물에 씌워줌으로써 이슬이 식물줄기에 와닿아 그 성장에 쓸모있게 쓰이도록 하고있다. 엄혹한 자연환경속에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였다.

국제적으로 볼 때 물절약형농법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가 보다 심화되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22차 국제관개 및 배수대회에서는 미량관개물절약기술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선진적인 2중막려과기술을 도입한 관개기술은 극히 적은 물 혹은 영양액을 식물의 뿌리부근에 보내여 식물뿌리층의 토양을 고르롭고 적당히 그리고 부단히 적셔줌으로써 식물이 물과 비료, 공기 등 생장요소를 합리적으로 얻게 한다. 이보다 앞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가물철에도 농작물의 소출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물보존방법을 연구하였다. 오이와 강냉이밭에 새 방법을 도입한 결과 소출이 각각 145%, 174%로 늘어났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에서는 물절약형농법에 물기흡수제를 비롯한 기술제품들을 개발도입하고있다. 로씨야에서만도 물기흡수제를 리용하여 물을 훨씬 절약하면서 소출을 20~70%나 높이고있다.

1980년에 세계적으로 5 000t밖에 안되였던 물기흡수제의 년간생산량은 2011년에 와서 100만t에 달하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량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이다. 식량안전은 국가의 안전과 세계평화와 직결되여있다.

세계가 식량위기를 겪고있고 식량을 정치적무기로 악용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현시기 남을 쳐다보는것만큼 어리석은짓은 없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자신의 힘이다.

자기의 실정에 맞는 선진영농방법을 꾸준히 받아들여 제땅에서 제힘으로 농사를 잘 지어 자급자족하는 여기에 자주적인 삶을 누리는 유일무이한 길이 있다.

본사기자 배 금 희

꼴린다 그라바르 끼따로비츠 흐르바쯔까대통령으로 선거

흐르바쯔까에서 꼴린다 그라바르 끼따로비츠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최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으며 흐르바쯔까력사상 처음으로 5년임기의 녀성대통령으로 되였다.

이 나라 전국선거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심각한 피난민문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피난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7일 유엔은 이 지역들에서 지난해 상반년에 분쟁 등으로 인한 피난민수가 약 55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크림과 쎄바스또뽈에 대한 유럽동맹의 부당한 결정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유럽리사회가 크림과 쎄바스또뽈주민들에 대해 그 무슨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외무성은 크림과 쎄바스또뽈은 로씨야련방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으로서 유럽동맹이 그 지역 주민들을 차별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로씨야정부는 자국공민들과 법인들에 대한 유럽동맹의 그릇된 조치들에 대응할수 있는 합법적권리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쎄르게이 나리슈낀이 최근 국가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지배주의책동에 각성할것을 유럽나라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유럽리사회의회에 미국이 옵써버의 자격으로 있는것이 이 유럽기구를 유럽대서양기구로 볼수 있는 리유로 될수 없으며 더우기 미국이 감시인으로 자처할수 있는 리유도 아니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아무런 납부금도 바치지 않으면서 너무도 란폭하게 자기의 리익을 실현하고있으며 유럽나라들은 다투기만 하면서 전체 유럽을 분렬, 약화시키고있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유럽인민의 가정에서 살면서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하면서 바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은 유럽인들을 리간시키기 위해 책동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유럽나라들은 수치스러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대륙을 구원해야 하며 수천km나 떨어져있는 국가들의 충고나 훈시없이 자기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얼마전 외국방문과정에 한 연설에서 적들은 이슬람교나라들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이슬람교나라들에 대한 적들의 적대시정책은 바로 이 나라들의 진보를 가로막기 위한데 있다고 까밝히고 단합된 힘으로 이를 짓부셔나갈것을 호소하였다.

— 꾸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나갈 립장을 밝혔다. 반세기이상 계속된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꾸바는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반꾸바봉쇄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009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